

머리글

우요한 세례자요한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평소처럼 성복천을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였지만, 성복천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그리 빠르지 않았기에, 어떤 모녀의 보폭과 비슷하게 성복천을 걸었고, 본의 아니게 모녀의 대화도 엿들 수 있었죠.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어머니는 초등학교 2~3학년으로 보이는 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는 꿈이 뭐였어?”라는 딸의 질문에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라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엿들은 사연인즉슨 남편과 떨어져 사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요리도 배우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딸과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그 엄마의 말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또 딸과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かを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만 합니다.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선 분명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소중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전지전능함을 포기하고 세상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박탈감과 공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박탈감과 공허함의 감정이 무서워서,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모습, 내가 움켜쥐고 싶은 욕심은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포기’할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에 대한 ‘포기’는 결국 ‘자기 비움’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포기하는 그 순간에는 박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한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신성(神性)을 포기하신 것, 세상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가장 소중한 우리를 얻기 위함이셨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움켜쥐고 있는 것,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2026년 각 교정시설 옥서기 지원



각 교정시설(성인, 청소년)에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특별 간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43,600명), 서울동부구치소(14,550명), 서울남부구치소(18,000명), 서울남부교도소(17,500명) 모든 수용자에게 얼음물을 지원하였고, 고봉중고등학교와 분류심사원 청소년들에게는 7, 8월 매주 1회(총 9회) 아이스크림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8월 3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정민하 울리오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 물 위를 건다가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에 대한 복음 말씀

에 대해 정민하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믿음이란 풍랑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베드로가 물에 완전히 빠진 뒤가 아니라, 빠져들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는 점을 되새기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고 지칠 때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사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끝까지 그들의 걸을 지켜주는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교정사목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교정사목의 여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5일(수)~7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여름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축제를 사는 그리스도인 / 주제 성구: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7일(금) 파견 미사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3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 특별 간식 지원



8월 19일(수) 대방동성당 빈첸시오회의 후원을 받아 서울남부 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에 특별 간식(치킨 43마리)이 지원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 수용자들이 맛있는 치킨을 나누며 잠시나마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대방동성당 빈첸시오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승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저는 이번에 남부교도소에서 견진성사를 받은 엘리야입니다. 견진성사를 신청하고 교리 수업을 받기 시작할 때만 해도 선선했던 날씨가 어느샌가 습하고 후덥지근하게 바뀌었네요.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에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 답답하다가도 뒤돌아보면 이만치 지나온 시간에 놀라곤 합니다.

제가 처음엔 믿음도 없고, 그저 여러 종류의 종교에 관심이 있어서 배경이나 역사 같은 걸 찾아보는 수준이었는데, 어쩌다 천주교와 인연이 되어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까지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매일 조금씩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나를 공부도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 가톨릭 신자로서 신실한 마음을 가졌는지 물어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지식도 마음도 꾸준함도 모자란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번에 견진성사도 받았고 당연히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테니 그동안의 제 모습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부님 축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청년 김대건'을 보면서 얼마나 고증이 잘 된 건지는 모르지만, 김대건 신부님의 사연에서 찡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신부님은 그분의 이름을 이어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시절 조선을 위해 힘썼던 분과 지금 이곳에 있는 저희를 위해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많은 신경 써주시는 신부님 모습이 비슷한 느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축일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과 견진성사를 위해 교리 수업을 열심히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부족한 솜씨지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을 모티브 삼았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
우리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026. 07. 16.
From. 엘리야

“치유의 여정과 동반. 아직은 사랑받고 싶은 아이들”



권희진 정혜 엘리사벳 / 더품다교육공동체

† 찬미 예수님.

뜨거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실 9월도 여전히 덥겠지요? 그래도 ‘아, 한여름의 별과는 다르구나. 가을이 올 준비를 하나보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8월의 작열하는 햇볕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뜨겁습니다. 수감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상반기 만델라 학교 소년 수감자들과의 만남은 감사와 찬미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발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생명의 씨앗을 잘 키워낼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꽃꽂이하던 날, 늘 함께해 주는 고마운 봉사자님에게 “아! 선생님을 어떻게 여기에 꽃삽니까?” 하며 싱긋 웃어 보이던 아이, “이 꽃은 누구에게 주지? 이 선생님께 드릴까, 저 선생님께 드릴까?” 하며 모두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던 아이들의 어여쁜 너스레는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사실 ‘아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한 덩치 하는 다 큰 소년들이는데, 제 눈에는 사랑받고 싶은 귀여운 아이들로만 보여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 학교 수업을 할 때 학생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제가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받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그럼 살인자도요? 감옥에 있는 나쁜 사람들도요?” 하는 아이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잠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지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존엄함마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의 허물만을 기준 삼아 생명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과연 하느님 앞에 당당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차가운 시멘트벽과 쇠창살이 가로막힌 소년교도소 교실로 생명 가득한 꽃과 식물을 들고 들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위에 가려진 아이들의 빛나는 존재 가치를, ‘나’라는 존재가 절대 무가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아이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순간, 저

는 아이들 안에서 무언가 회복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회복은, 제 마음속에 흐르던 온기가 아이들에게 닿고, 그 흐름이 더 크게 흘러넘쳐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는 ‘치유’의 순환과 같았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을 치유하려 들어간 그곳에서 저 역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늘 기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 부모님 접견 행사를 앞두고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수업을 준비해 갔습니다. 부모님께 드리겠다며 신나서 꽃을 꽃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무언가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두 정성껏, 행복하게 꽃바구니를 완성했지요. 어버이날 행사가 지나고 다시 찾아간 교실에서 한 아이가 씩씩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아마 우리 엄마는 제가 드린 꽃바구니, 거기 그냥 놓고 갔을 거예요.”

그 말속에서, 씩씩한 표정과 목소리 속에서 깊고 외로운 그늘이 그려졌습니다. 카네이션 바구니에 담았던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잘 살고 싶었던 소박한 다짐마저 세상에 닿지 못하고, 자신이 전한 마음이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이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였습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그 사랑이 다시 거절당할까 봐 조마조마해하는 한 소년의 여린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당황스럽고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지막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에서, 어색하지만 사랑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마음으로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단단하고 상처 입었던 마음에 마침내 치유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때로 차갑게 끊어지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담장 안 깊은 어둠 속까지 찾아와 그 외로운 영혼의 발을 가만히 씻겨주십니다. 버려진 것 같았던 아이의 마음 발에도 주님의 은총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돌봄이 아이들을 어루만져, ‘나답게’, 곧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저 ‘죄를 지은 소년 수형자’로 분류될지 몰라도, 하느님의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사 43,4)



사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시간

김미리 /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강사

지난 4월은 유난히 바쁘면서도 마음 깊숙이 깊은 울림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원구치소를 시작으로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까지 한 달 동안 세 곳의 교정시설에서 취·창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마다 육체는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삶과 진솔한 마음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여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비학과 아로마를 활용해 자기 이해를 돕고 취업과 창업 동기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시간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교육생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로 어떻게 만들까’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선택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지, 왜 자꾸 흔들리는지, 어떤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담하며 깨달은 것은, 많은 사람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방향을 잃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교정시설의 공기는 늘 차갑고 정적입니다. 첫 만남에서 마주한 교육생들의 조심스러운 눈빛과 경계 어린 태도 뒤에는 복잡한 감정과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수비학을 통해 각자의 성향과 인생 흐름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생여정수’와 기질을 확인하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굳게 닫혀 있던 마음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 왜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며 다시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하는 순간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을. 분위기가 열린 뒤에는 아로마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기는 빠르게 마음의 문을 두드렸고, 긴장된 호흡이 가라앉으며 굳어 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에도 따스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의 내내 말없이 앉아 계시던 한 교육생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오늘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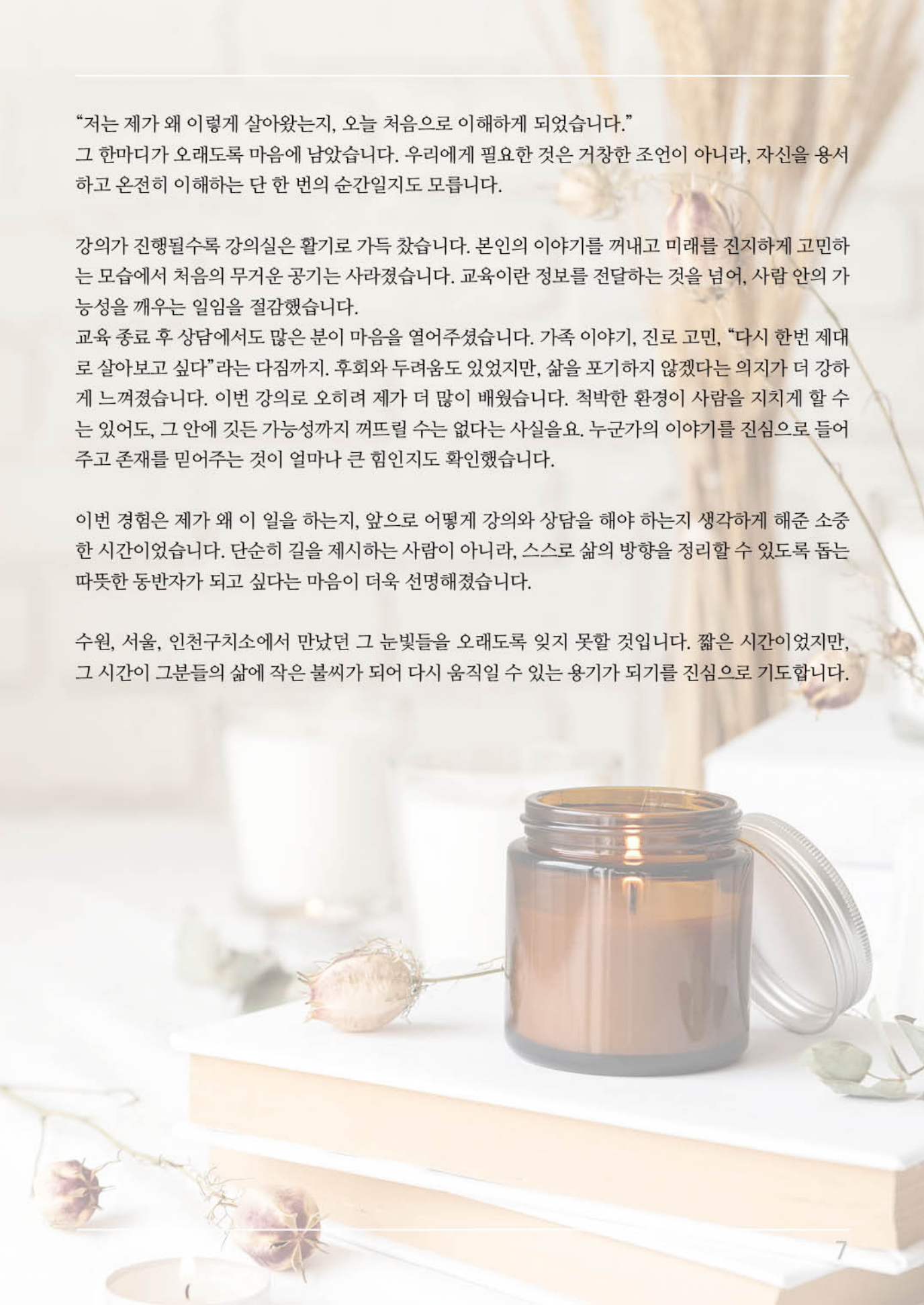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조언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고 온전히 이해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강의가 진행될수록 강의실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에서 처음의 무거운 공기는 사라졌습니다. 교육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람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일임을 절감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상담에서도 많은 분이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족 이야기, 진로 고민,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다짐까지. 후회와 두려움도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강의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척박한 환경이 사람을 지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안에 깃든 가능성까지 꺼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재를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강의와 상담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수원, 서울, 인천구치소에서 만났던 그 눈빛들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그분들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0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행사 알림

- 9월 7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9월 7일(월)~10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남사
- 9월 8일(화)~10일(목), 14일(월)~15일(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4차 소년수강명령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9월 4일(금), 8일(화), 10일(목)~11일(금)~15일(화), 18일(금)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6기 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9월 12일(토)~13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길음동성당
- 9월 14일(월)~15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여사
- 9월 15일(화) 해밀(범죄피해자 가족) 가족 미사 / 교정사목센터 성당
- 9월 16일(수)~18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제주도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여사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6/07/16~26/08/15)

2026년 7월~8월에는 강연진, 서정희, 송영진 마르타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명은, 한미자 세실리아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해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